

전체 주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메시지 3

아브라함의 하나님

(2)

형제를 위해 싸움으로

하늘에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림

성경: 창14:1-24, 히7:1-4, 25-26, 8:2

- I. 하나님의 단체인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부활시키시는 삼일 하나님으로 불리는 단체인 가시떨기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갈6:16, 롬2:28-29, 빌3:3, 출3:2-6, 14-15, 마22:31-32.
- A.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마다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이 다만 그의 속에 타는 불을 가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구속받은 죄인인) 가시떨기라는 것과, 이 불이 삼일 하나님 자신, 위대한 자존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다—창3:17-19, 요8:58, 눅12:49-50, 계4:5, 5:6, 1:14, 롬12:11.
- B. 하나님의 구속으로 인하여, 창세기 3장의 추방하는 화염이 출애굽기 3장의 방문하고 내주하는 불꽃이 되어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는이들 안에 설치되었다—창3:24, 갈3:13-14, 21, 딤후1:6-7, 딤펢전3:15, 참조 신33:16, 민9:15-16, 레6:12-13.
- II. 신앙의 가족인 교회의 건축을 위해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대로 행해야' 한다—롬4:12, 갈5:25, 6:10.
- III.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제단과 천막의 삶을 살 뿐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싸움으로 하늘에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것이다—창12:7-8, 14:1-24.
- A.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떠나 그의 천막을 멀리 소돔으로 옮기는 잘못을 저질렀다(13:5-12).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13절).
1.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는 것이었다—참조 빌3:17, 고전4:16-17, 히13:7.
2.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안에 있는 합당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그들을 따름으로 계속 생명의 노선과 주님의 움직이심의 흐름 안에 있어야 한다—고전15:33, 잠13:20, 딤후1:15-18, 2:22.

- B. 소돔 주변의 땅이 비옥하였으므로 롯을 소돔을 향해 떠났다. 결국 그는 그 성으로 들어가 거기 살았고 그곳에 정착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소돔은 정복되었고 롯은 포로가 되었다—창 14:12, 참조 램2:13, 고전1:9.
- C. 아브라함은 그의 형제의 약점을 개의치 않았고 롯이 고난과 재난을 당했을 때 기뻐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의 형제가 포로 된 것을 보는 것이 수치였을 뿐이다—요일5:16상, 사 58:6-7, 잠10:12, 약5:19-20.
- D.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싸우려는 강한 결단을 내렸다. 또한 그는 싸우러 가기 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천지의 주재께 그의 손을 들어 기도했다—창14:14, 22, 딤펢전2:8.
- E. 아브라함이 그의 삼백 십 팔 명을 데리고 가서 네 왕과 그들의 군대와 싸우기로 결정한 것은 장면 뒤에서 멜기세덱이 롯,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싸움을 위해 중보 기도한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창14:18-20, 히7:1-4, 25-26, 4:14-16, 롬8:26-29, 34.
1.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우리의 왕이신 대제사장으로서는 하늘에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히5:6, 10.
 - a. 그리스도께서는 땅에서의 사역에서 아론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으로서는 죄를 제하셨다(요1:29, 히9:26).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시어 우리가 죄를 이기도록,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창14:18-20, 히8:2, 참조 스펴6:13).
 - b. 의의 왕이요 살렘(평강)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의 머리 되심과 주권 아래 있음으로 생명 주는 영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허락하여 우리가 의와 평강이 다스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다—히7:1-3, 사9:6, 32:1, 17, 벴후3:13, 엡1:10.
 - c. 제사장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을 접촉하여 우리가 그분으로 적셔져 그분이 스며들어 그분과 연합되는 것인데, 이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들을 돌보시고 떡과 포도주이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하심 안으로 들어감에 의한 것이다—마26:26-28.
 2.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동역하는 사도의 사역은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성도들 안으로 공급함으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공급과 누림을 얻게 함으로 ‘형제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히7:25, 8:2, 눅 22:31-32, 요21:15-17, 행6:4, 계1:12-13, 참조 출28:9-12, 15-21, 29-30.
 3. 왕이신 대제사장으로서는 하늘에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은 시편 110편 3절—“주의 전쟁의 날에 주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속에서 기꺼이 헌신하니 새벽의 태에서 나오는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에 계시되어 있다.
- F. 우리가 하늘에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린 것은 우리가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를 다루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1.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이심을 위해 우리는 승천하신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땅에 속한 물질로 공경함으로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야 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창14:20, 히7:2, 4, 참조 말3:8-10, 눅6:38.
 2.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이심을 위해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풍성을 누림으로 땅에 속한 물질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창14:21-24, 참조 왕하5:15-27, 요삼7-8.